

광주시, 홈로봇가전 지능형부품 개발 기반 구축 '속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국비 100억원 등 확보 가전제품 개발·실증평가·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가동

광주시가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 개발 기반 마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 신규과제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홈로봇가전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홈로봇가전'은 로봇과 가전제품의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가전제품에 로봇화·지능화(AI) 등을 적용해 사용자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광주시가 진행하는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환경가전, 주방·조리가전, 케어가전, 홈 디바이스 등 가정 내 사용되는 모든 범위의 가전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설계, 시제품)과 개발품의 성능평가, 사용성 평가, 실증평가, 인증지원, 마케팅 등 개발에 대한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신규기획 제품개발, 보유제품의 개선·개발 중인 제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일단 기업 수요 중심 시험·실증 지원 기반 구축, 기술개발 혁신 방향 제시,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한 대응 지원 등을 통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20개소 육성, 2000억원 규모 생산 유발, 600명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1차 목표로 잡고 있다. 시는 또 홈로봇가전 산업이 일반 제조업과 달리 로봇, 가전 제조사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후방 산업인 소재·부품·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SW) 분야와 전방 산업인 시스템 통합·수요분야(제조·서비스)

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지원을 기반으로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해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수행 주체인 광주테크노파크는 가전, 로봇 분야의 KOLAS국제공인시험 지원기반과 인공지능(AI) 데이터학습 개방형 연구실 등 보유 장비 87종 88대를 연계해 시험·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가전제품 부품개발에 대한 전문기술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홈로봇가

전의 표준개발·기술지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로봇부품개발·인력양성과 로봇부품융합을 지원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부품설계, 제작, 마케팅 등을 특화해 전주기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주연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품 개발·상용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구개발 비용 절감, 제품 신뢰도 향상 등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産 2000만원대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사전계약

1회 충전 315km 넉넉한 주행거리 현대차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진행

2000만원대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EV)이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차는 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EV)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시작한다. 사전계약을 진행하는 모델은 최대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설계된 항속형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315km를 달릴 수 있다. 캐스퍼 EV 항속형 모델의 출고가격은 3150만원이지만, 친환경차 고시가 완료되면 개별소비세 할인을 받아 판매 가격이 2990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과 취득세 면제 효과를 더해 실제 소비자 구매가격은 2000만원 초중반이 예상된다. 캐스퍼 EV는 픽셀 그래픽을 적용한 인상적인 디자인, 1회 충전 시 315km라는 넉넉한 주행거리, 소형차라기 무색한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으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날 출시된 항속형 모델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모델과 오프로드 스타일 외장 디자인이 적용된 크로스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캐스퍼 EV 생산 기지 GGM은 지난달 대

중에 첫 선을 보인 캐스퍼 EV에 대한 관심도에 생산물량을 기존보다 25% 늘린 2만1400대를 생산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사전계약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앞에서 대규모 팝업 전시 공간 '캐스퍼 일렉트릭 스튜디오 압구정'을 운영한다. 캐스퍼 EV를 직접 체험하고 도슨트의 상품 설명 및 온라인 구매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캐스퍼 일렉트릭의 주요 특징점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해결사 능력 테스트'를 마련해 팝업 운영 기간 테스트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한 한 명에게 캐스퍼 일렉트릭을 증정한다. 이밖에 사전계약 기간동안 캐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계약 후 충고를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간84가 디자인한 한정판 휴대폰 그림책을 증정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독보적인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을 준비했다"며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자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떡깨비' 2주년

1만여 가맹점·누적매출 202억 선착순 4000명 할인쿠폰 이벤트

전남도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떡깨비)을 도입한 지 2주년을 맞았다. 떡깨비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출시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1만 212개 업체를 가맹점으로 유치하고 202억 9000만원의 누적 매출액을 올렸다. 전남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주떡깨비)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한다. 주문 만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회원 수도 10만 5300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 '떡깨비' 2주년 기념 5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이벤트는 선착순 4000명 대상으로, 떡깨비 앱에서 결제하면 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5% 페이백 이벤트와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에 견줘싼 수수료로 등록업체를 모으는 것 외에 앱을 이용할 소비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걸고 나왔던 여러 공공 앱도 편리함이나 혜택의 측면에서 배민 등 기존 서비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차별화를 더 많이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생배달앱 멧겨요는 누적 가맹점 2000개소, 회원 수 3만 명, 매출액 6억 원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이벤트와 가맹 혜택 제공, 적극적인 홍보로 공공·상생배달앱의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장터 기획전...남도 한우상품 20% 할인

10일부터 3주간 할인특판전

남도 한우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는 10일부터 3주간 한우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연다. 한우값 하락과 사료비 급등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한 기획전으로, 남도장터에 입점한 400여개 한우상품을 이달 말까지 20%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남도장터 홈페이지의 '남도한우와 함께 힘내-소-' 기획전 코너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기간 내 꽃등심·안심·채갈 등 개별부위와 한우 선물세트 등을 2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1장당 최대 2만원 할인)이 1인당 3매씩 제공된다. 한우 할인 판매에 이은 축산물 기획전도 추가로 진행된다. 백야장터(제철상품), 수요장터(주간 인기상품) 등 상시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를 포함한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20% 할인판매한다. 재단법인 남도장터 관계자는 "전남도가 민생경제대책으로 사료비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 재단도 힘을 보태기 위해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 시가총액 역대 최대 찍었다

2022년 1월 17일 이후 최고 증가

코스피가 9일 논치보기 장세 끝에 2860대에서 마감했다. 2022년 1월 17일(2890.10) 이후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했으며 시가총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9.62포인트(0.34%) 오른 2,867.38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7포인트(0.52%) 오른 2,872.63으로 장을 시작한 뒤 상승폭을 줄여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지난주 2800선을 돌파한 이후 전날 약보합으로 숨을 고른 코스피는 이날도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였으나 연고점(2875.37)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2339조 6866억원으로, 종전 사상 최대 코스피 시가총액인 2021년 8월 10일의 2339조 2060억원을 뛰어넘었다. 9일(현지시간)부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등 향후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

트들이 줄지어 있어 증시 전반에 관망세가 짙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7원 내린 1381.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13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25억원, 기관은 310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5포인트(0.13%) 오른 860.4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0.91포인트(0.11%) 오른 860.18로 출발해 장중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352억원, 8조 3647억원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67.38 (+9.62)
▲ 코스닥	860.42 (+1.15)
↓ 금리(국고채 3년)	3.114 (-0.005)
↓ 환율(USD)	1381.60 (-1.70)



롯데백화점 광주점 'LP 팝업 스토어'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LP판을 선보이고 LP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14일까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LP 팝업 스토어' 행사를 연다. 행사장에서는 클래식한 아날로그 감성의 다양한 LP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디즈니 영화음악 컬렉션 및 재즈의 아이콘 쳄베이커, 파리의 샹송 등 한정판 LP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거래 30일전 의무 공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및 하위규정은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 또는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유형을 구체화했다.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